

[기자수첩 01]

# 그린리모델링시장을 주목하라



▲ 강은철 기자



정부는 국내 에너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 물론 최근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에너지수요관리가 중요 이슈 중 하나였다.

수요관리의 핵심은 발전소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에너지를 최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제한해 에너지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. 결국 에너지사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.

우리나라의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의 21%를 차지하고 있다. 감축잠재력이 높아 수요관리 감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.

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외간열과 창호교체 등 건물외벽의 열관류율을 향상시켜 단열성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.

영국이나 독일,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보조금 및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를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존 건축물의

단열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유도정책이 꼭 필요하다.

이렇다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열성능 개선으로 에너지수요를 줄이고자 하는 '그린리모델링'이 주목받고 있다.

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해 신축시장이 급감하면서 건설사는 물론 냉난방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이런 의미에서 그린리모델링시장은 신시장을 창출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.

저효율의 냉난방기를 고효율의 냉난방기로 교체함으로써 발전소 건설비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수요관리의 핵심사업이 될 수 있다.

건축물에서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60% 이상을 차지한다. 다시말해 그린리모델링사업 중 냉난방교체사업에 보다 집중해야 이유다.